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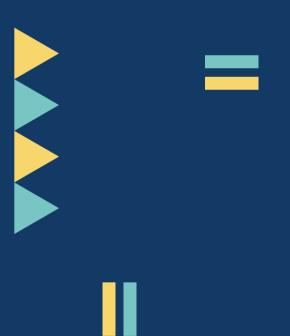




202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CONTENS vol.6

국가정책정보협의회장 인사말		
0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협의회 연혁	04
	제4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05
	임시총회 및 회칙3차 개정	
	정기총회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 수상소감	06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ICoASL 2021) 개최	08
	회원기관 현황	10
02.	회원기관 활동 소식	
	국립생태원	12
	농림축산검역본부	1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 03.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202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협력교육프로그램 운영		
- 남북하나재단 "먼저 온 작은 통일(小統), 북한이탈주민"		
- 국토연구원 "위기와 변화의 국면에 선 도시·공간·주택"		
워크숍 개최		
디지털컬렉션 구축		
- 2021년 컬렉션 소개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정책정보서비스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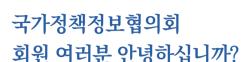


○ 04. 숫자로 보는 정책정보서비스

〈국가정책정보협희회 활동 소식지〉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30

16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입니다. 제4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

세4기 국가성잭성보협의회 회상으로 취임하게 되어 배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세종)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필요한 양질의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정보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 입안기관 및 연구기관의 전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정책정보 네트워크이자, 상호협력의 장(場)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각 정책기관의 특화자료를 큐레이션하여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88개 회원관으로 시작한 협의회가 2021년 12월말 기준 255개 회원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요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많은 정책기관들이 혐의회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성원

해주셔서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기반 마련을 위해 창립 초기부터 애써주신 남영준 전(前) 협의회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회 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 업무가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되고 정책정보 서비스가 일원화되면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무국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하여 전 세계적 비상시국을 몰고 온 코로나19가 현재에도 끊임 없이 확산되어 사회적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협의 회의 대면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이 그 간의 협의회 추진성과와 방 향성을 점검해보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에 대 응하여 협의회 운영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혐의회가 앞으로 정책정보 도서 관(자료실)의 구심점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관에서 현 장의 실태와 의견들을 적극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회원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 으로 향후 협의회는 정책정보 협력망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지식정보자원 공유를 고도화하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정책정보 도서관(자료실)에 든든한 버팀목 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협의회 활동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과 위상제고,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올바르고 창조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세종)도서관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정책정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회장 서혜라

0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 협력사업 시작

2009.01. 정책정보공유협의회 구성

2021	2020	2019
2021.02. 협의회 업무 이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2021.09. 제3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임시 총회(서면보고) 및 회칙 3차 개정 제7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서면보고) 2021.11.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 (ICoASL 2021) 공동개최 2021.12. 제4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2020.09. 제3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제6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서면보고 2020.12. 202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온라인세미나	2019.09. 제5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제3기 운영위원회 구성 2019.1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2018	2017	2016
2018.02. 제2기 운영위원회 회의 2018.04.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2018.09. 제4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2018.12. 제2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2017.03. 운영위원회 회의 2017.06. 공동전시*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2017.09. 제3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2016.03. 운영위원회 회의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6.06.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2016.09. 제2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니
2015	2014	2009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2015.1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

2015.10. 디지털서고 구축*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로 2015년 11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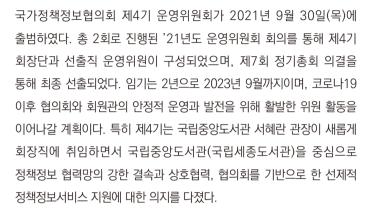
정책정보협력망으로 전환 **2014.11.** 정책정보협력망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

- 현재 255개관(2021.12.)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수립 담당 공무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4.06. 기존 가입기관 대상

제4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2021년 9월 30일~2023년 9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 (구)디지털기획과에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회칙 3차 개정을 임시총회를 통해 추진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주관기관에 국립세종도서관 병기(제4조, 제14조), 협의회 회원 자격 대상 명확화(제6조), 협의회 임원 선출 절차 명시(제11조), 사무국 조직 현행화 등이며, 임시총회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보고 방식으로 9월 9일(목)에 개최하였다.

제7회 정기총회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제7회 정기총회가 9월 30일(목)에 서면보고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서면보고를 통해 '21년도 협의회 주요 현안 및 추진성과, 회원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회원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매회 정기총회와 함께 추진하였던 정기 세미나는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ICoASL 2021)로 대체하여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



환경부 **최정순** 사무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원석** 팀장



국립중앙도서관 **김수정** 과장



남상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정경은** 사무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정훈 책임기술원



김혜창 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현선** 차장



경기대학교 **최성필**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배경재 교수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들의 사기진작 및 정책 정보서비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매년 협력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공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 단체 3곳과 한국수자원공사 정기영 책임위원이 수상하였다. 이들 수상자들은 기관 소장자료의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화 및 대국민서비스, 정책정보종합목록,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정책기관 순회대출 등 정책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책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21년도 협력 유공자에 선정되었다.







도로교통공단 | 계형진 대리

도로교통공단 도서관은 2014년 정책정보협력망 참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년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많은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2018년도 희귀정책자료 디지털화와 2021년도 디지털컬렉션 구축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우수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만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정책정보 콘텐츠를 개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단의 홍보는 물론 전문도서관 역량역시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유공기관으로 문화체육부장관표창을 수상한만큼, 앞으로도 협력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하고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 정기영 책임위원

'16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은 풀지못할 숙제처럼 늘 따라다 니던 이용자서비스 만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사막의 오 아시스와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지원'과 '기관 순회 대출서비스'는 도서관의 존재와 필요성을 새 롭게 부각시켰고, 사서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한층 높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17년 인문학 강연은 경영진과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강연회를 개최하여 K-water 신조직문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8년, '19년도엔 사내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작은음악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책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첨을 통한 최소한의 참석자 외 온라인으로도 전직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아니었다면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상까지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물 전문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행복을 공유하는 공 간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의 회와 윈윈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 이성민 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국가R&D 관련 정책자료 발간을 위해서 노력해오던 중,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운 영중인 정책정보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와 홍보실 웹진을 통해서 R&D이슈리포트와 R&D브리프 등을 홍보하고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와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협력을 하였는데 장관표창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여 국립세종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정보서비스와 재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정책자료과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

ICoASL 2O21 개최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개회사(일부)〉

At a time when we are facing common tasks to solve together, I hope the conference becomes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inspire each other.

I believe that the professional librarians'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bright future of libraries.

Adding to that, I look forward to sharing libraries' covid-19 exerience and experimental policies at the conference. I wish we could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take a big step toward a constructive library field through cooperation.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중앙도서관)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제7회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이하 ICoASL(아이코아슬) 2021」를 개최하였다. ICoASL은 국제전문도서관협의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SLA) 아시아지부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행사로 2008년 인도 델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 개최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초에는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온라인 진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온라인 실시간 송출로 진행된 동 행사에는 아시아 전문도서관 사서 222명이 실시간으로 참가하였고, 시차 등의 사정으로해당 시간대에 참여가 어려운 122명의 사서는 다시보기의 방식으로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의 도서관 미래 구상(Envisioning the Future of Library in the Post-Coronavirus Era)'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ICoASL 2021은 국내외 도서관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학계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아시아 전문사서들의 우수논문 세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의장인 김재수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장의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남 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이 ICoASL 20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Debal C Kar. 아시아지부장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의 행사기념 메시지가 송출되었다. 아시아 도서관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의 시련을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기조강연〉



Catherine SLA 차기회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이범훈 서강대 교수

개막행사에 이어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코로나19, 디지털전환 등 도서관계 현 안과 발전적 미래상에 대해 강연하였다. 국제전문도서관협의회(SLA) Catherine Lavallée-Welch 차기 회장이 '코로나감염병 세계대유행 이후의 도서관 트렌드 (Libraries trends after the pandemic)' 강연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자 문헌 정보학자인 장윤금 교수가 '코로나 이후의 도서관 혁신(The New Normal: The Innovation Post-Pandemic library Service)' 강연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자 전(前) 한국물리학회장인 이범훈 교수가 '도서관과 오픈액세스(Library and Open Access: A Researcher's Perspective)'에 대해 강연하였다.

ICoASL 2021에서 선정한 아시아 각국의 우수논문은 행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다운받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Library transformation through Open Virtual Literacy(OV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등 우수논문 29편이 탑재되어 아시아 전문도서관계의 최근 정보와 담론들을 나누었다.

ICoASL 2021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전문도 서관 사서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도서관계 최신정보들이 활발히 공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아시아 도서관계를 하나로 잇고, 서로 연대하는 장을 성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서관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전용 웹사이트〉



〈행사 포스터〉

13:00(KST) November 24, 2021

회원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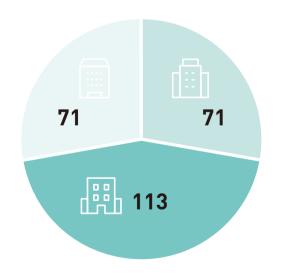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회원기관 수 255**

가입연도별

기관수(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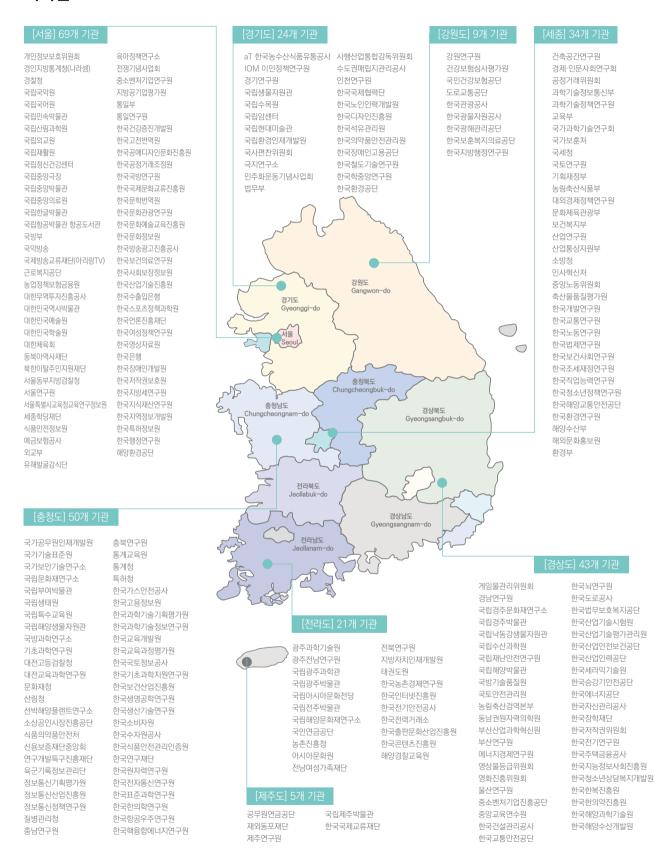




2021년 신규 가입 14개관

순번	기관명
1	한국한복진흥원
2	국립항공박물관 항공도서관
3	육군기록정보관리단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국방부
6	부산연구원
7	법무부
8	예금보험공사
9	국립재활원
10	인천연구원
11	한국장학재단
12	식품안전정보원
1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4	경남연구원

지역별



<u>02</u> 회원기관 활동소식



지역도서관과함께 하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특별전시 개최

국립생태원 생태정보도서관은 '기후변화와 생태계'특별 전시를 인근 지역도서관에서 2021년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운영하였다.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생태학 분야 전시를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장항공공도서관, 서천도서관, 군산늘푸른도서관과 함께 기획하였으며 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기후변화 속도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 이야기△기후변화와 생물들 △기후위기와 대응 △국립생태원과 기후변화 연구 △병들어 가는 생태계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또한 '내 손안의 탄소중립'생태체험교육을 특별프로그램으로함께 구성하였다. 특히, 전시구성 중 '국립생태원과 기후변화 연

구'에서는 국립생태원이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 구상나무 생태학적 연구, 가문비나무 유지능력 평가 등 기후변화 연구 과제를 소개하였다. 또한 전시장에는 연구 성과물, 생태도서 등을 함께 전시하여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생태조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 동식물을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동 전시 및 탄소중립 생태체험교육을통해 지역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가치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서울대학교 수의학박물관

수의(獸醫) 유물 온라인 교환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서울대학 교 수의과대학(학장 한호재, 이하 '서울대')은 2021년 11월 4일 부터 12월 3일까지 한달 간 수의(獸醫) 유물 온라인 교환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의 수의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검역본부와 서울대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 로 한국의 근현대 수의학 발전사를 선보였다. 개막 행사는 11월 4일 오전 9시에 김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전시 회 부대행사로 '한국의 수의유산 보존 및 아카이브 구현' 세미나 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 중 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고재민 교수가 수의유산 발굴 및 유물 등 자료 보존관 리에 대해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주요 전시물은 그동안 검역본 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 중 '가축질병 보고서(1913년), 축혼비





개막행사





온라인 전시관: 전시회 영상전시(좌), 전시회 사이트(우)



행사 포스터



연계 세미나 발표

(1916년), 실험장비(1970년대)' 등 30여 점과 서울대가 보유한 '수의학 교과서(1950년), 실험실 저울(1960년대)' 등 30여 점 을 실물과 영상으로 교환 전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 을 위한 거리두기와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으며, 전시기간 이후에도 새로 개설된 APOA 디지털역사관 (https://lib.gia.go.kr)에서 계속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검역본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수의 전문 국가기관으 로서 검역본부 도서관에서 1945년 이전 수의 기록물 등 총 3만 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행정박물 상설전시 를 하고 있다.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기념전

〈공예로 떠나는 호주 여행〉 개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실은 2021년 공예주간을 맞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서전시《공예로 떠나는 호주 여행》을 개최하였다.

이 도서전은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호주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호주디자인센터(Australian Design Centre)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주의 자연 환경과 독창적 문회를 반영한 호주의 공예·디자인을 소개하는 자료 30여 점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호주의 공예단체 Maker&Smith가 주최하는 국제공예영화제《Makers' Film Festival》에 출품된 공예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디자인코리아뮤지엄과의 협력으로 지난 100여 년간의 공예 잡지를 통해 한국 공예사의 흐름을 훑어보는 《잡지로 보는 한국공예사》전시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발전과 연구역사 기록을 위한

'KIHASA 디지털 역사관'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7월 20일 개원 51주년을 기념하여 정책연구 역사의 보존과 후대 이전을 위해 'KIHASA 디지털 역사관'을 오픈하였다. 'KIHASA 디지털 역사관' 구축의 목적은 보건복지 정책연구 50년의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후대 연구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식전수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역사관 구축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0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자료와 기록물을 다수 발굴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립역사를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주요 내용은 1) 기관역사 2) 연구역사 3) 기록물아카이브 4) 51주년 기념페이지 5) VR역사관 등이며 특히 크로노토프 기법으로 만들어진 VR역사관은 현재의 공간에 역사를 배치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구역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과 연구의 발전사를 분야별로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KIHASA 디지털 역사관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발전 과정과 연구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더 큰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03

<u>국가정책정보협의회</u> 협력사업

202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유해교란해양생물이 와도 우리 바다는 괜찮아!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2021년 7월 12일(월)부터 7월 31일(토)까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기획전시 '놀러와도 괜찮아'를 개최하였다. '놀러와도 괜찮아'는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해양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기획된 전시이다.

*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이란?

유해교란해양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연구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시 기회

전시는 그래픽패널, 영상, 실물전시, 인터랙티브 터치월 등을 활용한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전시를 열며〉에서는 관람객들에게 '해롭다'라는 의미의 다면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서는 유해교란해양생물의 개념과 해당 생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소개하였다. ▲〈우리가 있잖아〉에서는 '해파리 실물 표본', '해파리 방지막' 등 실물전시를 통한 연구성과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였다. ▲ 또한 인터랙티브 매체를 통해 관리기술과 대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체험존 코너의 컬러링 활동을 통해 전시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놀러와도 괜찮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생태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효과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해설영상과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제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관람의 제약을 해소하고 대국민 정책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막행사



전시의 개막행사는 7월 12일(월)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남영준 국가정책정보협의회장을 비롯한 내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공동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전시 구성



전시를 열며

관람객들에게 '해롭다'라는 의미의 다면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

전시 영상을 통해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개념과 생물별 특이사항을 관람객에게 소개









놀러와도 괜찮아(인터랙티브 터치월)

유해·교란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및 기술을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반응형 디지털매체로 연출



우리가 있잖아

'해파리 실물 표본', '해파리 방지막' 등 실물전시를 통한 연구성과의 소재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



체험존

전시의 메시지를 담은 세 종류의 엽서컬러링을 통해 관객들이 해양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섹션.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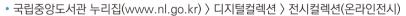






온라인 전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놀러와도 괜찮아' 전시장을 3D로 촬영하고, VR 기법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전시로 구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컬렉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저시컨레셔







전시 기관 리뷰



〈놀러와도 괜찮아〉는 지난 2021년 7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 된 공동 전시였습니다. 찌는듯한 폭염 속에서 어렵사리 도서관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는 낯 설고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전시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반응 형 디지털 연출에 공을 들여 준비하고, 신선한 체험요소들을 제공 해드린 것이 다행히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다와 해양생물에 대해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 여러분들도 바다와 해양생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전시가 되었습

니다. 특히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하듯이" 관람하셨다는 관람객의 후기는 전시를 준비한 팀원들 모두의 기억에 아직까지도 가장 인상 깊은 한 줄로 남아있습니다.

전시 기획에서부터 7월 전시 개막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일정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번 전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원고를 검토해주시고 전시물을 제공해주신 참여연구진 박사님들, 전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전시〈놀러와도 괜찮아〉에 놀러와서 재밌게 즐겨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력프로그램 운영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현안 및 동향 등을 보다 쉽게 분석·제공하는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남북하나재단과 국토연구원에서 각각 3회씩 '정책정보POINT'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협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차 남북하나재단

먼저 온 작은 통일(小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 자립을 돕는 남북하나재단 내부의 전문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정책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1회 | 8.04.(수) | 북한이탈주민 역사와 정착지원제도의 변천(정인성 이사장)

2회 │ 8. 11.(수) │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정착(전연숙 사업운영본부장)

3회 | 8. 18.(수) |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임병철 경영기획본부장)



2차 국토연구원

위기와 변화의 국면에 선 도시 · 공간 · 주택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간계획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일상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생활, 코로나19와 소비시장의 변화, 자산불평등 사회에서 주택의 역할 등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1회 | 12, 09.(목)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와 지역의 역할(강현수 국토연구원장)

2회 | 12. 14.(화) | 소매공간을 지배하는 바이러스(문새하 연구원)

3회 │ 12. 16.(목) │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오민준 전문연구원)

POINT

POINT



워크숍 개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참여기관 확대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공공·연구기관의 도서관 및 자료(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일 시 2021. 6. 25.(금), 14:00~17:00

장 소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24개 기관, 총 40명

강의내용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 홍보 / 김선태 주무관(충주시청)



일 시 2021. 11. 17.(수), 14:00~16:00

*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진행

참 석 자 36개 기관, 총 80명

강의내용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 이임복 대표(세컨드브레인연구소)

디지털컬렉션 구축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소장 자료 중 가치 있고 독창적인 정책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디지털컬렉션으로 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전번역원 2개의 기관에서 총 90종의 디지털컬렉션을 구축하였다.

2015 •

한국경제정책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240종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시대별 이슈별 자료



2016

국토연구자료 | 국토연구원 / 54종

국토의 개발 계획의 역사와 과정, 정책 등 국토연구 관련 보고서



2017

통일북한자료 | 통일연구원 / 100종

북한의 실상,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촉 등의 연구자료





2018

세계 속의 한국문학 | 한국문학번역원 / 44종

한국문학 번역출간에 대한 현황과 한국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 소개



국가정보화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9종

우리나라 정보화의 역사와 ICT 기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자료



2019

이민정책연구자료 IOM 이민정책연구원 / 40종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한민국 이민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성을 제시



수출진흥과 한국경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0종

KOTRA 발간자료를 통해 수출과 함께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습 발견



2020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미래 국민건강보험공단 / 45종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관리 연구 보고서 등의 콘텐츠 제공



재외동포재단 컬렉션 | 재외동포재단 / 37종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을 재조명 하고, 재외동포사회가 구축한 소종한 문화 활동 소개



2021

함께 만들어가는 "도로 위의 안전한 세상" | 도로교통공단 / 40종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연구 활동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한국고전번역원 / 50종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 문화, 사상의 결정체인 고전문헌 소개



2021년 컬렉션 소개





도로교통공단 / 40종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첫 3,000명대를 기록하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26조원에 달해 국가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차 이슈까지, 급변하는 교통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결과물이 적극 공유되어 보다 나은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본 컬렉션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도로교통 관 련 연구자료를 "교통안전연구", "자율주행연구", "주요 교통통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40종의 원 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공단의 연구자료가 적극 공유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도로 위의 안전한 세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도로 위의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고전번역원 / 50종



고전(古典)이란,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문학이나 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오래된 서지(書誌), 전적(典籍), 문학(文學)을 포괄하는 고전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사상뿐 아니라 옛 제도 문물을 아는데 증거가 되는 자료이며 기록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고전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또한 고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 여러모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컬렉션에서는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든지 고전에 쉽게 다가가 친근함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 고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 시대 국가 기록시스템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방대한 역사 기록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인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을 비롯한 국가 편찬 고전번역서와 개인 저작 고전번역서, 『한국문집 총간』, 『한국고전총간』, 그리고 대중화도서를 통해 고전과 한층 가까 워질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은 민족 지혜의 샘물이자 정신문화의 뿌리이며 지적유산이 한데 모아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우리 가슴에, 우리 고전을" 컬렉션을 통 해 쉽게 고전을 접하며 삶의 지혜와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정책 자료 중 희귀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보훈처,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등 9개 기관의 희귀자료 3,573책을 디지털화하였다.

2016

3개관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2017

8개관 888책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3개관 3,570책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청

2019

11개관 14,837책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국립중앙극장, 해외문화홍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민속박물관

2020

7개관 4,703책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외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 재외동포재단, 한국은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

9개관 3,573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보훈처, 국립현대미술관,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은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후기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추를 맡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COVID-19)에 앞장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위치한 의학정보실은 의학 전문 도서관으로, 의학 관련 전자자원(Journal 및 E-book)을 제공하고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은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최신의 신간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립세종도서 관의 정책정보서비스인 '순회대출'을 통해 신간 도서 및 베스트셀러 1,000여권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동시에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졌다. 의학정보실에서는 순회대출 도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추천 도서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책 갈피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감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 소독 기도 비치하여 이용자 반납 후 소독을 실시하고, 순회하는 다음 기 관에 도서를 보내기 전 전체 도서를 다시 소독하고 있다.

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 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순회대출 덕분에 독서를 통해 쉼을 누리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순회대출 서비스가 확대되어 해당 정책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도서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립중앙의료원 의학정보실



서가



자료이용



책소독기



책갈피 행사



추천도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2021년 정책기관 순회대출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 해 동안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 도서를 이용하였다. 특히 공예 · 디자인 전문 분야 외의 다양한 주제분야 도서를 접할 수 있어 공진원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서비스를 계기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내 독서동호회 신설로까지 그 열기가 이어졌다.



순회대출 도서 이용서가

<u>04</u> <u>숫자로 보는</u> 정책정보서비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내외 최신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의 정보 흐름과 국민의 정보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은 최신 정책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1 정책 전문정보

- 정책정보포털POINT
- G-Zone(지존)
- 학술지목차메일링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014년 3월 서비스 개시 / 구독 학술지 1.5만 여종 정책연구원 1만 4천명 / 1,465,773건 제공

1,465,773건

정책정보포털 POINT 콘텐츠

온라인 정책보고서, 학술자료, 웹사이트 협력기관 소장자료 등 249,455,693건

249,455,693건

정책정보종합목록 제공 및 상호대차서비스

2014년~ / 255개과 / 1 549 585간

1,549,585건

〉 상호협력

- 정책정보종합목록
- 상호대차 서비스

정책자료실 이용

617,716명 / 1,283,804책

1,283,804책

2 연구지원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정책정보도우미
- 국외학술전자책 원스톱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움〉제공 2014년 2월~ / 633회 29,860명

29,860명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독서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정책정보 서비스

2015년~ / 강연 80개관 지원 수회 대축 108개관 28 600책 제

28,600책



정책정보 전문사서 워크숍

2017년~ / 29회 / 2,012명

2,102명

